

강진군 공동육아카페 3호점, “핫한 모두의 공간으로”

강진군은 최근 성전면에 위치한 행복갤러리에서 임신부, 엄마, 아이 등 주민들과 함께 ‘공동육아카페 3호점’ 재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은 이번 재개장으로 공동육아카페 3호점을 ‘프라이빗 파티룸’ 등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과감한 리모델링을 거쳐, 대상층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강진군은 지난 2019년, 성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한 행복갤러리를 공동육아카페 3호점으로 활용해왔다.

그동안 공동육아카페는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무인카페로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 아동들에게는 장난감을 무료로 갖고 놀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지자, 군은 특단의 조치로 강진군육아지원센터(센터장

이수민)와 함께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달라진 육아카페3호점에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모래 놀이터와 정글집이 설치됐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조성됐다. 여기에 온화한 인테리어에 최신 가구와 가전을 구비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예약자에게 공간을 대여하는(1일 3시간 / 최대 12인), 일명 ‘파티룸’도 운영한다.

공동육아카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부부, 임신부 등은 물론, 백일잔치·돌잔치 및 환갑잔치 등도 열 수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공동육아카페 3호점처럼 아이들은 물론, 모두가 함께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은 최근 성전면에 위치한 행복갤러리에서 임신부, 엄마, 아이 등 주민들과 함께 ‘공동육아카페 3호점’ 재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은 이번 재개장으로 공동육아카페 3호점을 ‘프라이빗 파티룸’ 등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과감한 리모델링을 거쳐, 대상층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중소기업음부즈만 기업 규제 해결 간담회 가져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중소기업음부즈만이 최근 대불산업단지에서 ‘기업 규제 해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불산업 단지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음부즈만, 대불산업단지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 감면 ▲녹지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과 개선방안이 공유됐고, 조선업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박 음부즈만은 사전 건의사항, 간담회 제출 의견 등을 토대로 담당부처와 협의해 기업 애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부처 및 음부즈만과 협업체가 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재개 결혼이주여성 3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친정나들이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가정, 22명의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정나들이 위한 항공권을 배부하고 일정 및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신안군은 올해 4천만원의 들여 1가정당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을 포함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중 친정 나들이 기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교육참여도 등을 고려해 11가정(베트남 7가정, 캄보디아 3가정, 중국 1가정)을 선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지역에

서 열심히 살아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방문을 축하하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엄마의 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안전한 여행길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기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참여도에 앞서 지인소개 결혼성사 실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안군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시 한 국어반 운영, 취·창업 교육, 온라인 국적 취득 교육 및 찾아가는 자녀 생활 교육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언어 소통과 자녀 양육,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홍근 기자

목포, (주)세원하드페이징과 투자협약 체결

목포시가 목포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주)세원하드페이징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가 최근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의 6개 시군과 8개 기업과 함께 전남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세원하드페이징은 목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홍률 목포시

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세원하드페이징 객찬원 대표, 시군 단체장 및 기업대표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 8개 기업이 참여했다.

목포시 투자기업인 (주)세원하드페이징은 전북 완주에 본사를 두고 2018년 목포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세라믹 관련 제조업체로, 올해 7월 중 목포세라믹산단 미분양부지 1필지(5,033.4㎡)에 총 100억원 규모를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세라믹산단 2필지를 추가 매입해 1만9천950㎡의 부지에 총 500억원을 누적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세라믹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세라믹산단이 명실상부한 세라믹 산업 최고의 클러스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생태 기자

무안군 4-H연합회 과제 답 풍년기원제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몽탄면 구산2리에서 무안군4-H연합회(회장 양현승)가 과제 답에 모내기하고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제 답 운영은 ‘무안군4-H연합회’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활동 중 하나로, 회원이 공동으로 벼를 재배해 농업 신기술을 실증하고 수확물을 요양원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날 모내기는 짙은 볏씨를 눈에 직접 뿌리는 드론 항공 직파로 진행했는데 이는 모판 준비를 위한 약 1개월의 기간과 투입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과제 답 900평 중 450평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앙을 해 향후 수확 수량과 품질 등을 비교 실증할 예정이다.

/고민재 기자

함평,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박차

함평군이 역점 추진 중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이 공정을 80%를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해안안전시설 확충 ▲돌머리 커뮤니티센터 ▲귀어귀촌빌리지(8개동) ▲돌머리 방앗간 ▲해수품질 정비 ▲돌머리·주포항 시설 및 경관 정비 등이다.

군은 오는 7월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기존 해수욕장, 갯벌탐방로 등의 시설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수와 유황석을 활용해 따름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돌머리 해양치유(해수찜)센터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엘로우 시티



장성군 Jangseong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엘로우시티 장성